

부산지역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감염방지를 위한 지식과 실천도에 관한 분석

Analysis on Relevant Factors in Knowledge and Practice for Infection Prevention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in Busan

김혜영*, 남설희**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생체재료연구소*,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

Hye-Young Kim(khy0606@daum.net)*, Seoul-Hee Nam(miss4228@hanmail.net)**

요약

치과진료실내에서 감염관리의 주체가 되는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면세마 실습 시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태도 실천을 조사하여 학교에서부터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도와 실천도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학교에서의 감염관리를 엄격히 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치과 진료실에서 감염관리 실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현재 감염방지 예방에 대한 현황에 대한 결과 먼저 b형 간염 예방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불이행이 55.0%, 이행 45.0%의 순으로 나타났고, 치면세마 실습 시 환자내원 시 전신질환 문진 여부에 대해서는 이행이 88.6%로 나타났으며, 감염방지 교육여부에 대한 결과는 91.6%가 이행하고 있어 예방적인 측면도 대부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치위생과 | 감염방지 지식 | 감염방지 실천 |

A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make the infection control strictly from the school and to apply the infection control practice in dental clinic. It is asis on surveying the awareness attitude practice for the infection control when practicing the scaling to target the students in dental hygienics,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who will ecome the main agents of the infection control in dental clinic and y diagnosing how much the knowledge and practice for the infection control are kept in a school.

As a result of the present status on the current infection prevention, 55.0% of the total didn't perform it and 45.0% performed in case of the vaccination of type infection, and 88.6% asked a patient aout the condition of the systemic disease when practicing the scaling, and as a result on the education for the infection prevention, most of the preventive aspect was also performed well ecause 91.6% was performing.

■ keyword : | Dental Hygienics | Knowledge on Infection Prevention | Practices for Infection Prevention |

I. 서론

치과진료실의 감염관리 문제가 최근 치과감염 보도로 인해 감염관리가 개인의 안전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치과의료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감염관리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 2006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에 대해 제시하고 치과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과 진료 장비에 대한 소독, 멸균 등을 정하여 이를 실천하고 치과 진료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환자와 치과 의료진과의 교차 감염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2].

치과 진료실에서의 가장 주의해야 할 감염성 질환은 주로 혈액을 통한 b형 간염으로 치과진료실 내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3]. b형 간염의 경우 하루에 20명 환자를 진료하는 데 치과의사인 경우 1주에 9-10명 정도의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와 접촉한다고 추정되고 있다[4]. 미국의 경우도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병원체 감염을 예방하는데 개인용 보호 장구의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5].

치과 의료 종사자들의 감염 보균율을 보면, 구강외과 의사 24%, 보철치과의사 17.2%, 치과위생사 16.9%, 일반치과의사 15.9%, 치과기공사 14.2%, 간호조무사 1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 2.5%-5%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4].

치과의료 종사자들을 직업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치과진료를 통한 감염성 질환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든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이에 따라서 오염된 액체, 에어로졸, 타액 및 혈액에 대한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치과 환자와 치과의료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치과 진료실내 감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6][7]. 그러나 감염 예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할 치과의료 종사자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치과 진료실내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지만 쉽게 간과하고 지나치는 경향이 많다[8].

따라서 치과 진료실에서의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의 병력 조사,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이러한 감염 질환에 대해 치과 진료 시 장갑, 마스크 등 개인용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환자의 구강 세균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부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9]. 그리고 날카로운 기구의 취급에 대한 적절한 기법 숙지, 치과 진료에 대한 모든 기구나 장비 등을 올바른 세척과 소독 및 멸균이 이루어져야 한다[10].

이러한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은 학교에서부터 철저히 교육되어야 하며, 감염관리 지식 및 실천도는 결국 치과임상 현장에 적용될 초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진료실 내에서 감염관리의 주체가 되는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면세마 실습 시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도와 실천도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진단하여 학교에서의 엄격한 감염관리를 토대로 치과 진료실에서의 감염관리 실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단면조사 연구로 설계되었고, 부산광역시 A, B대학의 치위생과 재학중인 202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 치과감염방지의 지식도, 감염방지의 실천도, 감염방지 예방의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조사는 2012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각 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참여의 동의를 구하고, 총 230부를 배부하였다. 무기명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한 뒤, 수거된 자료 중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202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ver. 18.0)를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연구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판정은 유의수준 $\alpha = 0.05$ 을 사용하였다. 구체적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각 학년별 감염방지 지식도는 교차분석(카이제곱검정 및 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별, 학년을 조사하였으며 2개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의 총

202명 중에 성별은 여성이 196명(97%)으로 비율이 높았고, 학년은 3학년이 113명(55.9%)로 높았고 2학년은 51명(25.2%)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Division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6	3.0
	Female	196	97.0
Year	Freshman	38	18.8
	Sophomore	51	25.2
	Junior	113	55.9
total		202	100.0

2. 감염방지의 지식도

2.1 감염의 전염인자

감염의 전염인자는 감염원, 전염방법, 전염경로, 숙주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모든 학년에서 109(54.0%)로 나타났다. 1학년에서는 22명(10.9%), 2학년에서는 28명(13.9%), 3학년에서는 59명(29.2%)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전염방법인 혈액과 타액으로 전염된다는 비율이 모든 학년에서 44명(21.8%)의 순으로 나타났다. 1학년에서는 8명(4.0%), 2학년에서는 7명(3.5%), 3학년에서는 29명(14.4%)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Table 2. Infectious Agents of Infection : by Chi-square test

	Infectious Factor					total	p-value
	Reservoir	Method to be infectious	Infectious route	Host	All of four things		
Freshman	3 (1.5)	8 (4.0)	5 (2.5)	0 (.0)	22 (10.9)	38 (18.8)	.400
Sophomore	3 (1.5)	7 (3.5)	12 (5.9)	1 (.5)	28 (13.9)	51 (25.2)	
Junior	9 (4.5)	29 (14.4)	12 (5.9)	4 (2.0)	59 (29.2)	113 (55.9)	
Total	15 (7.4)	44 (21.8)	29 (14.4)	5 (2.5)	109 (54.0)	202 (100.0)	

2.2 HIV감염우려집단

HIV감염우려집단은 선별하지 않은 수혈 수용자가 93명 (46.0%)로 1학년에서는 19명(9.4%), 2학년에서는 25

명(12.4%), 3학년에서는 49명(24.3%)순으로 3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에이즈를 앓고 있는 이성애의 남성과 여성이 61명(30.2%)으로 1학년에서는 13명(6.4%), 2학년에서는 13명(6.4%), 3학년에서는 35명(17.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HIV Infection-concerned Group

	HIV infection-concerned Group						Total	p-value
	Homo sexual love	Intravenous injection user	People suffering from AIDS	A child born from HIV mother	A donee of unsorted blood	I don't know		
Freshman	3 (1.5)	0 (.0)	13 (6.4)	2 (1.0)	19 (9.4)	1 (.5)	38 (18.8)	.839
Sophomore	4 (2.0)	1 (.5)	13 (6.4)	6 (3.0)	25 (12.4)	2 (1.0)	51 (25.2)	
Junior	11 (5.4)	1 (.5)	35 (17.3)	16 (7.9)	49 (24.3)	1 (.5)	113 (55.9)	
Total	18 (8.9)	2 (1.0)	61 (30.2)	24 (11.9)	93 (46.0)	4 (2.0)	202 (100.0)	

2.3 HIV 구강증후 특징

HIV 구강증후 특징에 대해서는 구강칸디다병이 94명(46.5%)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1학년에서는 28명(13.9%), 2학년에서는 17명(8.4%), 3학년에서는 49명(24.3%)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치은염과 치주병이 42명(20.8%)의 순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대답도 29명(14.4%)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p<.05)[Table 4].

Table 4. Characteristics of HIV Oral Symptom : by Chi-square test

	Characteristics of HIV Oral Symptom						Total	p-value
	Oral Candidiasis	White spot of a hairy feature	Fever blister virus	Poxvirus	inflammation of the gums and paradentitis	I don't know well		
Freshman	28 (13.9)	1 (.5)	1 (.5)	0 (.0)	5 (2.5)	3 (1.5)	38 (18.8)	.010
Sophomore	17 (8.4)	7 (3.5)	6 (3.0)	0 (.0)	11 (5.4)	10 (5.0)	51 (25.2)	
Junior	49 (24.3)	4 (2.0)	17 (8.4)	1 (.5)	26 (12.9)	16 (7.9)	113 (55.9)	
Total	94 (46.5)	12 (5.9)	24 (11.9)	1 (.5)	42 (20.8)	29 (14.4)	202 (100.0)	

2.4 b형 간염 주요 원인 질환

b형 간염 주요 원인질환 대해서는 급성감염이 76명(37.6%)으로 1학년에서는 15명(7.4%), 2학년에서는 17명(8.4%), 3학년에서는 44명(21.8%)순으로 나타났다. 만성감염이 39명(19.3%)의 수치를 보였으며, 4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응답에는 30명(14.9%)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5)[Table 5].

Table 5. Main Cause Diseases of Type Infection

	Main Cause Diseases of Type Infection						Total	p-value
	Acute infection	Chronic infection	Liver cirrhosis	Liver cancer	All of four things	I don't know		
Fresh man	15 (7.4)	8 (4.0)	1 (.5)	7 (3.5)	5 (2.5)	2 (1.0)	38 (18.8)	.045
Sophomore	17 (8.4)	5 (2.5)	3 (1.5)	3 (1.5)	10 (5.0)	13 (6.4)	51 (25.2)	
Junior	44 (21.8)	26 (12.9)	8 (4.0)	9 (4.5)	15 (7.4)	11 (5.4)	113 (55.9)	
Total	76 (37.6)	39 (19.3)	12 (5.9)	19 (9.4)	30 (14.9)	26 (12.9)	202 (100.0)	

2.5 b형 간염 우려집단

b형 간염 우려집단은 선별되지 않은 혈액 수혈자 127명(6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학년에서는 21명(10.4%), 2학년에서는 29명(14.4%), 3학년에서는 77명(38.1%)의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병원내 감염이 36명(17.8%), 의료인 20명(9.9%)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Table 6. Type infection-concerned group

	Type infection-concerned group						Total	p-value
	Drug addict	Homo sexual love	Donee of unsorted food	Medical adviser	Infection in a hospital	I don't know well		
Fresh man	1 (.5)	1 (.5)	21 (10.4)	6 (3.0)	6 (3.0)	3 (1.5)	38 (18.8)	.767
Sophomore	0 (.0)	1 (.5)	29 (14.4)	6 (3.0)	11 (5.4)	4 (2.0)	51 (25.2)	
Junior	1 (.5)	1 (.5)	77 (38.1)	8 (4.0)	19 (9.4)	7 (3.5)	113 (55.9)	
Total	2 (1.0)	3 (1.5)	127 (62.9)	20 (9.9)	36 (17.8)	14 (6.9)	202 (100.0)	

3. 치과감염방지의 실천도

3.1 감염방지 실천행위의 이행여부

치면세마 실습 시 장갑착용여부에 대해서는 96.5%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척 시 고무장갑 착용도 96.0% 이행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도 94.1%였으며 건조 시 종이수건 사용은 85.1%였다. 마스크 사용은 97.5%였고 마스크 교환여부는 76.2%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5). 보호안경착용은 다른 감염방지 실천보다는 다소 낮은 55.9%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5). 보호가운 착용은 81.2% 였다. 보호가운 세탁이행은 67.7%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5). 생물학적 위험용기 분리수거 이행은 98.5%이었고, 분리수거 폐기물 수거는 92.6%의 이행률을 보였다[Table 7].

Table 7. Whether or not the practice act for infection prevention was performed: y Fisher 's exact test

	Performed	Not performed	Total	p-value
change of damaged gloves	199(98.5)	3(1.5)	202 (100.0)	1.000
separate iohazard container	198(98.5)	3(1.5)	201 (100.0)	1.000
Whether or not a mask was used	197(97.5)	5(2.5)	202 (100.0)	1.000
Whether or not gloves were worn	195(96.5)	7(3.5)	202 (100.0)	.582
Ruer gloves when washing	194(96.0)	8(4.0)	202 (100.0)	.038
Whether or not a hand disinfectant was used	190(94.1)	12(5.9)	202 (100.0)	.663
waste disposal	187(92.6)	15(7.4)	202 (100.0)	.149
paper towel use when drying	171(85.1)	30(14.9)	201 (100.0)	.158
protective gown wearing	164(81.2)	38(18.8)	202 (100.0)	.201
Whether or not a mask was changed	154(76.2)	48(23.8)	202 (100.0)	.000
protective gown washing	136(67.7)	65(32.3)	202 (100.0)	.001
protective goggles wearing	113(55.9)	89(44.1)	202 (100.0)	.000

: y Fisher 's exact test

4. b감염방지의 예방

4.1 b형 간염 예방 접종여부

b형 간염 예방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불이행이 55.0%, 이행 45.0%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하였다($p < .05$). 1학년은 7.4%, 2학년은 12.9%, 3학년은 34.7%의 불이행으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8. Whether or not eing vaccinated against type infection

	Whether or not eing vaccinated against Type infection		Total	p-value
	Performed	Not performed		
Freshman	23(11.4)	15(7.4)	38(18.8)	.046
Sophomore	25(12.4)	26(12.9)	51(25.2)	
Junior	43(21.3)	70(34.7)	113(55.9)	
Total	91(45.0)	111(55.0)	202(100.0)	

: y Fisher 's exact test

4.2 전신질환 문진 여부

치면세마 실습 시 환자내원 시 전신질환 문진 여부에 대해서는 이행이 88.6%로 나타났다. 1학년의 경우 16.8%, 2학년은 21.8%, 3학년은 50.0%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Table 9].

Table 9. Whether or not the systemic diseases were asked: y Fisher 's exact test

	Whether or not the systemic diseases were asked		Total	p-value
	Performed	Not performed		
freshman	34 (16.8)	4 (2.0)	38 (18.8)	.830
sophomore	44 (21.8)	7 (3.5)	51 (25.2)	
junior	101 (50.0)	12 (5.9)	113 (55.9)	
total	179 (88.6)	23 (11.4)	202 (100.0)	

y Fisher 's exact test

4.3 러버댐 사용 여부

치면세마 실습 시 러버댐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54.0%가 이행을 하고 있었고, 불이행은 46.0%였다. 1학

년의 경우는 13.9%가 이행했고, 2학년은 14.9%, 3학년은 25.2%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Table 10].

Table 10. Whether or not Ruer Dam was used

	Whether or not Ruer Dam was used		Total	p-value
	Performed	Not Performed		
Freshman	28(13.9)	10(5.0)	38 (18.8)	.006
Sophomore	30(14.9)	21(10.4)	51 (25.2)	
Junior	51(25.2)	62(30.7)	113 (55.9)	
Total	109(54.0)	93(46.0)	202 (100.0)	

: y Fisher 's exact test

4.4 감염방지 교육여부

감염방지 교육여부에 대한 결과는 91.6%가 이행하고 있었으며, 1학년은 16.8%, 2학년은 23.3%, 3학년은 51.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Table 11].

Table 11. Whether or not there is education for infection prevention y Fisher 's exact test

	whether or not there is education for infection prevention		Total	p-value
	Performed	Not performed		
freshman	34(16.8)	4(2.0)	38(18.8)	.886
sophomore	47(23.3)	4(2.0)	51(25.2)	
junior	104(51.5)	9(4.5)	113(55.9)	
total	185(91.6)	17(8.4)	202(100.0)	

y Fisher 's exact test

IV. 고찰

치과진료실 내에서 감염예방은 치과의료 종사자와 환자들 사이에서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감염예방을 위해서 감염질환에 대한 감염관리는 치과 의료 서비스에서 환자들이 받아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이며, 치과 의료진은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감염 방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예방 및 실천은 치과관리업무와 치과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에게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감염관리는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데, 감염관리 지식과 실천 및 교육의 시작은 학교현장에서 시작 할 수 있다. 학교에서부터 임상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감염관리의 형태 및 실천을 배우고 있다. 학교에서 감염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하고 교육받은 학생들은 치과진료실에 근무해서도 계속해서 감염관리에 대한 실천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치위생과 재학생들은 관련된 학과 수업, 실무현장실습 및 환자 상호 실습을 통하여 감염방지를 배우며 실천하게 된다. 학생들의 감염관리에 실천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학부 때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1]. 치위생과 학생들은 장차 치과진료실 내 감염방지의 중요한 책임을 지닌 치과위생사이자 치과진료실의 감염관리 담당자의 주역일 것이다.

김[12]은 치과위생사의 감염방지 교육 수혜 경로에 대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감염방지 교육을 받았다고 하였다. 학교에서의 감염관리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치과위생사의 교차감염 예방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감염방지 교육여부에 대한 결과는 91.6%가 이행하고 있었으며, 1학년은 16.8%, 2학년은 23.3%, 3학년은 51.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사료된다.

학생들의 감염성 질환 중 중대 질환인 b형 간염 예방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불이행이 55.0%, 이행 45.0%의 순으로 나타났고, 1학년은 7.4%, 2학년은 12.9%, 3학년은 34.7%의 불이행률을 보였다. 학교에서도 b형 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의무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생들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비율이 높았으나 본인 스스로 인지를 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보다는 학교, 학교 내 교수님, 정부기관의 영향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이[13]는 감염성 질환의 예방접종 실태를 보면 b형 간염 예방접종이 가장 많았으며, 독감, 홍역, 수두, 결핵,

풍진 등의 순서였다. 치위생과 학생에게 기본적인 감염성 질환인 b형 간염의 예방접종 비율은 2학년 38.5%, 3학년 36.1%로 2학년은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은 졸업 전 까지 b형 간염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현재 치면세마 실습 시 감염방지 실천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은 장갑 착용여부이고 본 연구에서는 96.5%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도 94.1%였으며 건조 시 종이수건 사용은 85.1%였다. 마스크 사용은 97.5%였고 마스크 교환여부는 76.2%여 대부분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13]는 학생들은 감염방지 예방 실천을 위한 사항으로 여러 항목 중에서 손 씻기를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가장 경제적이고 쉽게 행할 수 있는 행위인 손세척은 교차감염 방지 뿐 아니라 개인위생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모든 감염성 질환의 예방은 청결하고 깨끗한 손 관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손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기본적인 손 씻기 수칙과 손 씻는 과정 등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14].

이[13]는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손 씻기를 배운 수칙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손 씻기 실천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손상성 감염폐기물에 대한 의학적 처치법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는 관련 과목 수업에서 손상성 감염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취급과 위험성, 관리방법과 노출 시 대처방법 등에 교육이 요구된다[15]. 본 연구에서도 생물학적 위험용기 분리수거 이행은 98.5%이었고, 분리수거 폐기물 수거는 92.6%의 이행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감염관리의 주체가 되는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과 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염방지의 지식, 실천율, 예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감염교육에 대한 이론 교육에서만 머물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습 시 교육현장에서 감염방지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학교 실습 시 교육현장에서 감염관리 지식과 실천을 학습하는 출발점으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염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과 진료실에서의 감염 관리에 대한 정확한 대처법과 관리법으로 원활한 감염 관리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문선정, 구인영, "일부 지역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감염방지에 관한 인식 조사", 제12권, 제12호, pp.313-320, 2012.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fety standards on infection control in dental clinics, 2006.
- [3] M. R. Bae, *Cognition and Performance on Infection Control of the Clients and Staffs in Dental Health care*, Graduate School of Pulic Health, Inje University Korea, 2011.
- [4] H. S. Moon, "A study on the health status of dentists," JKADH. Vol.16, No.1, pp.53-73, 1991.
- [5] B. L. Gordon, F. J. Burke, J. Bagg, H. S. Marlorough, and E. S. McHugh, "Systematic review of adherence to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in dentistry," J Dent, Vol.29, No.8, pp.509-516, 2001.
- [6] G. McKenna, G. R. Lillywhite, and N. Maini, "Patient preferences for dental clinical attire: a cross-sectional survey in a dental hospital," Br Dent J., Vol.203, No.12, pp.681-685, 2007.
- [7] J. Hardie, "Concerns regarding infection control recommendations for dental practice," J Can Dent Assoc, Vol.58, No.5, pp.377-378, 1992.
- [8] Y. S. Nam, J. S. Yoo, and M. S. Park,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for prevention of infections by dental hygienists," J Dent Hygiene, Vol.7, No.1, pp.1-7, 2007.
- [9] S. K. Kim, *A Study on the Status of Infection Control of Dental Health Care Worker*, Educate School of Pu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2000.
- [10] H. J. Kim, *Dental hygienists' dental treatment in Daegu region Actual state in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standard*, Graduate School of pu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007.
- [11] Y. G. Lee and S. D. Kim, "The present condition of awareness on dental infection control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Vol.9, No.3, pp.468-478, 2009.
- [12] C. H. Kim and H. G. Jan,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infection prevention for individual protection of each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Vol.5, No.2, pp.63-70, 2005.
- [13] S. Y. Lee and Y. S. Kim, "Study on knowledge and practice for infection preven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seoul," J Dent Hyg Sci, Vol.11, No.2, pp.209-221, 2009.
- [14] Y. A. Lee, M. J. Jo, J. Y. Bae, and H. S. Park, "A study on practice of infection control among dental staffs in dental office,"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7, No.4, pp.263-269, 2007.
- [15] S. J. Moon and I. Y. Ku, "Research on cognition of infection control by dental hygienics student's in some," J of Conyents Association, Vol.12, No.12, pp.313-320, 2012.

저 자 소 개

김 혜 영(Hye-Young Kim)

정회원



- 2006년 2월 :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박사)
- 2002년 3월 ~ 2009년 2월 : 마산대학 치위생과 교수 역임
- 2009년 3월 ~ 2012년 :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역임

▪ 2013년 현재 : 경북대학교 연구원

<관심분야> : 구강보건예방분야, 두경부해부학, 조직발생

남 설 희(Seoul-Hee Nam)

정회원



- 2011년 2월 : 부산대학교 치의학 석사졸업
- 2013년 2월 : 부산대학교 치의학 박사수료

<관심분야> : 구강해부 및 조직학, 세포생물학